

치 사

푸르른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흘러넘치는 시간입니다. 향기로운 꽃잎들은 마음속까지 흠날리고 만나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좋은 때에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강형진 단장과 단원들이 평화와 행복을 감동으로 전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1999년 시작하여 어느새 제24회 공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하게 불교음악의 길을 걸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기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인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의 뜻과 같이 연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감동을 나뉘온 이러한 모습은 한국불교음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밝은 가르침이 연꽃의 은은한 향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이 불교음악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줍니다. 나아가 포교와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

을 주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의 인연으로 많은 불자와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탄생하고 이러한 음악들이 여울을 만들어 자비의 큰 바다를 이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가곡과 찬불가로 준비했다고 하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모든 솔리스트와 사찰 연합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